

‘미래 농업 한곳에’ 국제농업박람회 팡파르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열리는 2019국제농업박람회가 전남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17일 막을 올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여 5개 마당 12개 전시·판매·체험관과 3개 특별 전시로 꾸며지고, 특히 순천시에는 길가에 국가정원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화단에 6평의 규모로 조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남도가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을 국내외 농업현장에서 찾아 소개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2002년 대한민국농업박람회로 시작된 행사는 2012년 국제행사로 승격돼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 4회째 국제행사로 준비되어 국내외 관람객 45만 명을 목표로 개최된다.

폐널 중심의 전시에서 오감만족 체험 전시로 변화를 꾀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마당’을 시작으로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으로 구성되고, 장소는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주변 광장 33만㎡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독일·스페인·중국·일본 등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고, 행사는 5개 마당과 12개 전시·판매·체험관 등 3개 특별 전시로 꾸며지고, 특히 여성·청년 농업의 현주소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각종 체험과 전시를



순천시가 2019국제농업박람회에 조성한 화단.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려

순천시, 2019국제농업박람회 화단 조성해 눈길

보기 위해 3시간가량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주제관인 ‘여성농업마당’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주제로 이끌어가는 여성·청년농업인의 활동을 보여준다. 전남지역 식품·음식 명인들이 직접 나와 음식의 맛과 멋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내외 농업 분야를 전시와 상담 등으로 살필 수 있다.

또 해마다 관람객 관심이 집중되는 ‘전시체험마당’에서는 ‘80가지 208마리’ 동물과 교감하는 ‘행복한 동물농

장’ ‘단감 따기 체험’ 등이 마련됐다. 아열대 작목·식물 200여종을 볼 수 있는 ‘아열대식물원’은 이들 사이로 나비 등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생산지·소비자 단체 사이 만남의 공간이 될 ‘상생교류마당’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 농업인의 자긍심을 지피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 생태 관광으로 각광받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을 통해 농업의 관광산업가치를 일러준다.

이문석 기자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복지계획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현장.

마을복지계획 수립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으로 주민력 강화 기대

순천시는 지난 14일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3개 동지역을 방문해 ‘마을복지계획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복지계획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계획을 기획·논의함으로써 마을 주민 주도와 주민의 역량과 여건에 맞는 실현가능한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이 컨설팅으로 이웃 돌봄, 주민복지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 발굴과 복지 위기가

구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 리더들의 주민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컨설팅은 순천 YMCA에 함께 10월 한 달 동안 13개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강의와 복지 의제를 도출할 계획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주민자치회 복지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13개 동 복지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마을복지 비전수립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순이 기자

덕연동,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운영

10월 한 달간 연향3지구 연향건강지원센터에 창구 마련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거주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돕기 위해 10월 한 달간 아파트와 원로 밀집지역인 연향3지구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전입신고 창구를 추가로 운영하고 순천시 주소 갖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내 현장민원실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덕연동으로 이사 오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고, 전입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과 세미나가 덕연동에 소재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등 꾸준한 공공기관 입주와 굿직한 행사가 치러지면서 지역에 주소 갖기를 희망하는 주민

들의 행정수요에 권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덕연동에서는 이번 연향3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연향1지구의 동행정복지센터와 시립도서관 이동민원실, 연향2지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이동민원실을 동시 운영하여 3개 모든 권역에서 전입신고 창구를 운영하게 되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정부민원포털인 정부 24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은 더 편리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등 지역의 단체회원들과 함께 원로와 아파트 등을 찾아 전입세대 및 전입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지원 정책, 거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운영중인 덕연동 전입 신고 현장민원실 입구.

주 주민등록 일치를 위한 순천시 주소로 펼칠 계획이다. 갖기 운동에 대해 현장 홍보도 집중적으

정수현 기자



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0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순천시의회, 공동주택 공급정책 토론회 개최

건축·부동산 전문가 비롯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 발전방향을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APT) 공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정진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교수, 연구원 등 건축·부동산 전문가들과 관심이 있는 시민, 건축·부동산 관계자 등이 두루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순천시 주택시장 현황에 대한 강연을 통해 순천시 주택시장 진단 및 전망을 내놓았으며, 신영수 순천시 건축과장은 현재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은 박철우 순천대 교수와 좌장으로 강형구·박재원 순천시 의원, 임종필 순천시 안전도시국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호 순천대 평생교육원 박사, 박은희·강형만 공인중개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임대아파트 확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 아파트 층수제한 폐지 등 수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동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곽승호 기자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순천시서 운영

내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지역에 찾아와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민원접수를 통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주요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거나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합 관련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10월 15일부터 순천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순천시가 건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에 순천시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분야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곽승호 기자

삼산동, 다문화가정 행복한 요리교실 개강

결혼이주여성인 한국 음식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순천시 삼산동에서는 지난 14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하반기 다문화가정 행복한 요리교실’을 개강했다. ‘2019년 하반기 다문화가정 행복한 요리교실’은 한국 음식 조리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며 한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12주)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행된다.

10월 14일 시작하여 12월 16일까지 매주 1회, 10주간 운영되며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9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해 가족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요리 등 한국생활 적응을 도울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 계획이다.

보건소 2층 영양교육실에서 열린 이번 요리교실은 9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해 함박스테이크 조리법에 대해 배우고 조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정에서도 배운 요리를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 다듬기, 요리과정을 담은 레시피를 배부했다.

양정길 삼산동장은 “음식부터 시작해 모든 환경이 낯선 결혼이주여성에게 이번 요리교실이 한국의 음식문화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제19회 송광면민의 날 기념식 및 망향제 봉행

면민의 화합을 다지고 주암댐 수몰민의 아픔 위로

순천시 송광면에서는 지난 11일(금) 신곡천 망향각 공원에서 제19회 송광면민의 날 기념식 및 망향제를 실행민을 비롯한 송광면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암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지역 주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실행민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송광면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열렸으며, 면민 현장 நட목, 기념사 및 축사, 망향제, 기념촬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장병규 면민의 날 추진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면민의 화합을 다지고 주암댐 수몰로 고향을 잃은 실행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효성 기자

